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9월 2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20장 28-35절

설교제목 :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교회의 참된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교회의 목적에 따라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목회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받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이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도 임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형통한 삶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더 많은 해외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의 개념을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되어진 선교사를 돕는 정도의 협의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교회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본질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가진 한 인물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선교가 교회의 DNA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28절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28절을 봅시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다른 성경의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해당하는 헬라어 ‘데우’란 표현 대신에 ‘주의’란 뜻을 갖는 ‘퀴리우’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때문입니다.(예 롬9:5)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피값만큼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는 때론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약해보이지만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대한 보내심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 주님의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행1:8) 증인은 목격자란 뜻입니다. 목격자란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증인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란 '위트니스'의 어원은 '마르투스(martyr)'입니다. 즉 순교자입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 사건이 너무나 정확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각자의 삶에서 순교적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신앙이란, 순교적 신앙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순교적 각오를 갖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참고 요일2:3-6) 한국 교회처럼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에는 많이 힘썼는데, 정작 예수님처럼 사는 일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선교는 예수님처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슴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열정을 있는가?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려는 사명이 들어 있는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불타오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